



# 각 이코노미(Gig Economy) 변화하는 시대 속 새로운 노동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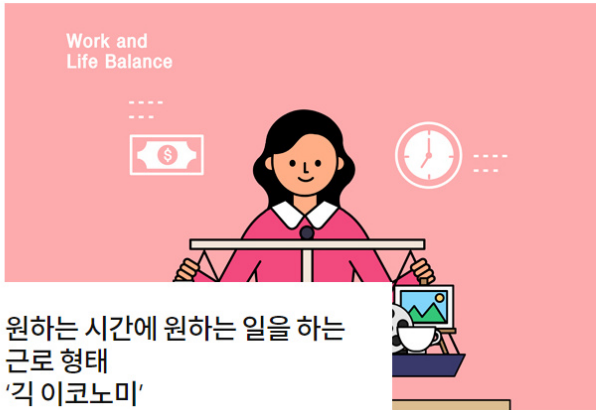
ISC 월간 웹진 '일과 사람' 21호에서는  
'각 이코노미(Gig Economy)'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웹진구독신청하기 

## 트렌드+

트렌드+ 포커스 영(養)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근로 형태  
'각 이코노미'

트렌드+ 비평가 + 니평비



산업계에서 바라본  
각 이코노미

인재교육으로 유연한  
'각 이코노미'를 구현한  
기업, 케이프라이드

트렌드+ 이달의 기업



트렌드+ 지식의 외출



각 이코노미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플랫폼

# 심표+

<p>일시적인 것들로 즐겨보는 <b>긱이코노미 (Gig Economy)</b> 여행법</p> 	<p>업(業)로드 일시적인 것들로 즐겨보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여행법</p> <p>자세히보기</p>		<p>슬기로운 직장생활 원하는 만큼 일하고 꿈꾸는 대로 사는 '긱워커'</p> <p>자세히보기</p>
	<p>생활의 발견 생활의 편리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로 챙기자!</p> <p>자세히보기</p>		<p>영화로운 ISC 긱 이코노미의 현실을 말하다 &lt;미안해요, 러키&gt;</p> <p>자세히보기</p>

# ISC+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사람투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힘이 되는 자격증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훈련  
'자동차정비기능사'**



## 독자참여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ISC웹진

**ISC 웹진 리뷰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하기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근로 형태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하는 'Gig'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다. '긱'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즉석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즉, 긱 이코노미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만 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관해 알아보자.

### 1인 비즈니스 플랫폼의 증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거래 형태가 변화했다. '노동력'은 하나의 거래 상품이 되었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하는 '긱 이코노미' 근로 형태가 등장했다. 이는 계약된 기간에만 근무하는 '임시직'과는 차이가 있다. 또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해 근로하는 형태를 말한다.

긱 이코노미 근로 형태가 활발해진 것은 스마트폰 '1인 비즈니스 플랫폼'의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독립형 경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1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국내외로 다양하다. 미국의 애플리케이션 태스크라빗(TaskRabbit)은 간단한 일이나 심부름을 비용을 받고 처리해줄 수 있으며, 영국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루(Deliveroo)는 음식 주문을 대행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퓨처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이와 같은 긱 이코노미에 참여해 이익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브스는 2020년 전체 직업의 43%가 독립형 경제활동의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 재능 판매·배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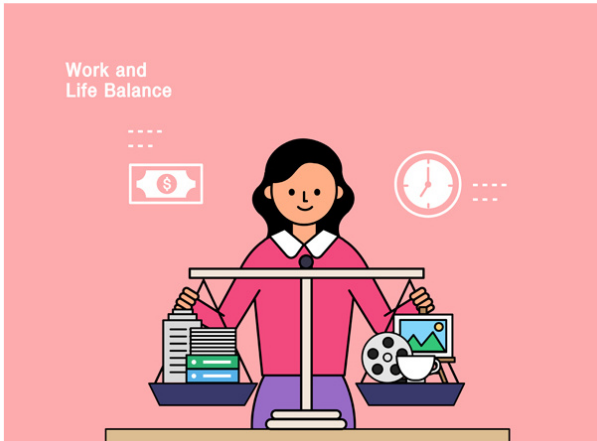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재능 판매, 배달 분야 등에 1인 비즈니스 플랫폼이 존재한다. 재능 판매 마켓 플랫폼에선 번역, 사진 보정, 자기소개서 첨삭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숨고', '탈잉' 등의 플랫폼으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은 오래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11년 설립된 재능 공유 마켓 '크몽'은 하루 평균 거래액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익숙한 색깔의 헬멧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배민라이더'로, 배달의 민족 전용 배달원이다. 한 가게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원하는 거리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배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직접 걸어 배달할 수 있기에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도 있어 인기가 높다. 코로나19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며 배달서비스 시장 또한 커졌는데, 한 배민라이더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긱 이코노미가 활성화되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전문 컨설팅, 법률 상담 등 전문적인 분야로도 그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워라밸 문화와 온디맨드 경제 확산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2030세대는 ‘평생직장’에 다니기보다 자유롭게 근무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곤 한다. 또 온디맨드(On-demand: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즉각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 경제가 확산되고 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 지위, 급여 등이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지만,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과 나만의 시간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각 이코노미의 플랫폼 노동이다.

직장인이라면 꼭 한 번 해본 적 있을 말, ‘회사 가기 싫다’이다. 월요일엔 월요일이라 출근하기 싫고, 금요일엔 금요일이라 퇴근하고 싶다. 그렇지만 맘 먹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 반면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자신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기분이 꼴꼴해 일하기 싫을 땐 일을 하지 않아도, 늦잠을 잤으니 늦게 일을 시작해도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워라밸이 중시되며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고,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워라밸 충족에 도움이 되었다. 각 이코노미 시대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노동 형태가 지속될 것이다.

리포트 리뷰

# 산업계에서 바라본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는 기업 또는 사용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어 노동력을 총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주문형 노동'의 형태가 늘어난 경제 현상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영, 회계, 사무 분야는 영역 확대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의 유연성 향상으로 긱 이코노미는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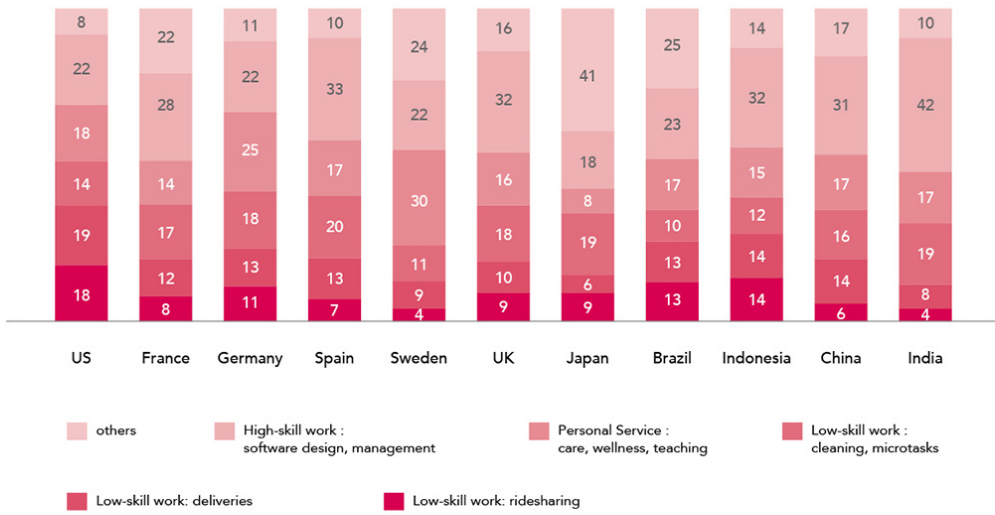
## The New Freelancers, 긱 이코노미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 트렌드

긱 이코노미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플랫폼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현 경제사회의 두 가지 특징인 '주문형 경제\*'와 '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 \*주문형 경제: 수요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주문하여 이용하려는 소비 수요가 노동 시장에까지 영향을 줌
- \*플랫폼 경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형태.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됨

즉,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노동을 수요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주문형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칭하게 되었다. 주문형 노동은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걸쳐 있으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범주가 나누어진다.

### 국가별 플랫폼 노동 거래의 프리랜서 업무 종류별 비중



※ 주: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출처: Boston Consulting Group(2018), BCG Future of work 2018 Worker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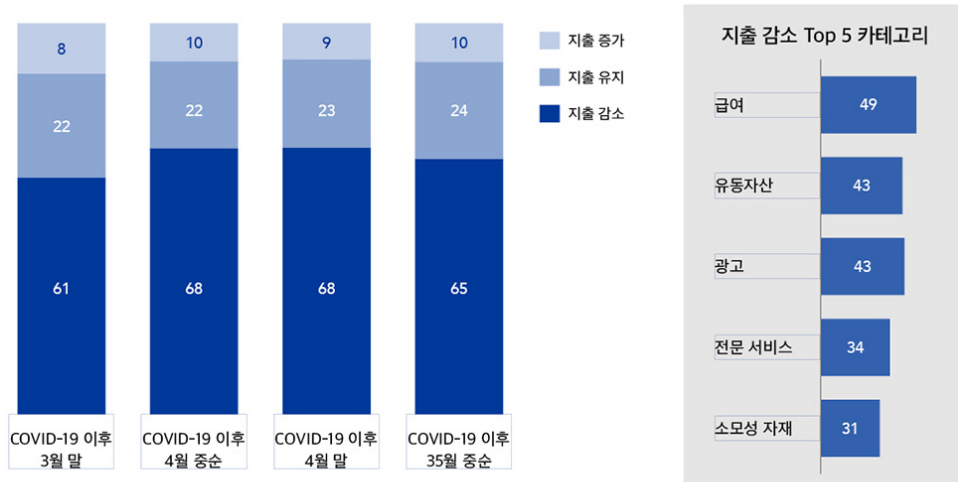
또한 각 이코노미로 인한 주문형 노동은 더 이상 작업의 복잡성이 낮은 일부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다. 흔히 주문형 노동이란 배달 기사, 승차 공유, 애완견 돌보미 등 소득이 낮고 단순 반복적인 분야 위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문성 있는 분야가 주문형 노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각 이코노미 확산을 주도하는 환경적 요소

노동의 단위 감소는 각 이코노미 확산을 주도하는 요소 중 하나다. 전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심지어는 비행 수단을 통한 대면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을 작은 단위의 일거리로 분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노동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만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변화도 각 이코노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이른 퇴직 등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중장년 노동자들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해당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최근 높은 급여보다도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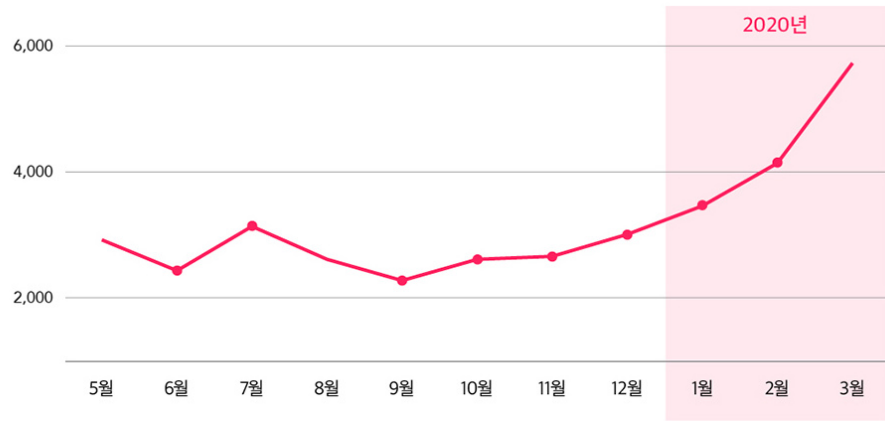
### 코로나 이후 기업 지출의 변화와 지출 감소 카테고리



※ 출처: AppJob Institute(2020), Future of Work Report 2020

세 번째 요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약 60%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여'이다.

## 크몽 프리랜서 서비스 등록 추이



※ 출처: 크몽 프레스(2020), 비즈니스 플랫폼의 활성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비즈니스 플랫폼 '크몽'에 따르면 2020의 프리랜서 서비스 등록 수가 1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를 여쩔 수 없이 겪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은 출퇴근 시간에 드는 낭비 시간을 줄이는 장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기업 역시 직원들이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원격근무 형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 이코노미 주문형 노동모델 역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의 기업

# 인재교육으로 유연한 '각 이코노미'를 구현한 기업, 케이프라이드

케이프라이드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 돼지고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전문 기업이다.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케이프라이드는 돼지고기의 사육부터 도살, 가공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ISC의 NCS 컨설팅을 통해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다른 분야까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황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를 재배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과 전략을 추진하는데 NCS 교육이 동력이 되고 있다.

## 케이프라이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각 이코노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프리랜서와 같은 임시직을 채용하여 상황을 대처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의 생활패턴, 소비성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각 이코노미는 촉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식품 관련 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춤형 제품을 내놓거나 판매 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는 소비자 니즈의 분석과 시장 수요의 파악을 위해 TF 팀을 구성하여 교육과 인력의 재구성을 통해 상황을 대처하고 있으며, 외부 인력을 통해 다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가 이코노미' 시대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BD엔터프라이즈로 시작한 케이프라이드는 돼지고기 유통에 있어 소비자들이 잘 소비하지 않는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 안심, 등심 등을 이용해 돈가스, 소시지, 양념육을 생산 유통하는 회사다. 2014년 경기도 이천에서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의 확장과 추진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많은 좌절을 맛봐야만 했다. 김현준 대표는 당시 술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최고의 업체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현재 케이프라이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통해 사업에 안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HACCP 인증과 ISO22000 인증을 받아 생산시설의 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와 ISC의 인연은 깊다. 현재 위치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낀 케이프라이드는 NCS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직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전문성과 목적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 명의 인원이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NCS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인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16년 NCS 활용 경진대회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교육과 개발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인적자원시스템은 기존 사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의 지향과 함께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사원들의 직무기술에 대한 목표 설정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다. 회사, 팀, 자기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이 능력을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케이프라이드가 자랑하는 교육원에서 매주 다른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원들이 참여해 관련 업무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준다. 월요일에는 리더십 소양을 위한 교육, 화요일은 식육 처리에 대한 실습교육, 수요일은 식육 가공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에 필요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지지치 않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희식비 지원, 의견수렴을 통한 여가활동의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번아웃이 되는 직원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특히 식품사업을 하는 케이프라이드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힘써왔다. 상황에 맞춰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힘든 상황에서 올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다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새로운 부서인 상품기획팀을 구성했다. 상품의 생산부터 기획, 판매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이 TF 팀은 각 분야를 망라하는 인재풀로 케이프라이드가 상황 변화에 빠른 대처와 성과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소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또한 내부 각 이코노미의 형태로 직원이 적성에 맞는 부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순환배치를 통해 적재적소에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 각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부문에 있어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업의 진행이나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내부에서 지연되는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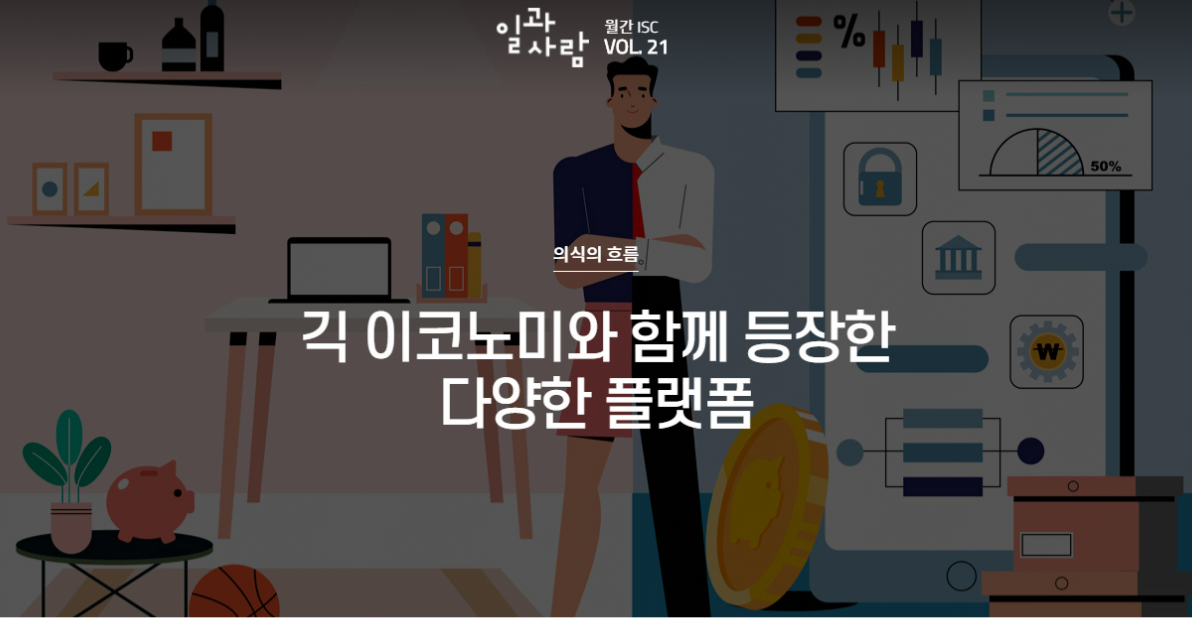
김현준 대표는 IS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회사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자신의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ISC의 활동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ISC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ISC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의 체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mini interview

### 케이프라이드 대표 김현준

- Q** 11월 웹진의 테마는 '각 이코노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 A**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환경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 나름대로 고용 유연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별로 특성은 다르겠지만 식품 업계의 특성상 이슈에 민감하고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해 주문형 노동형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구성원의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이 있다면?
- A** 산업현장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 기업이 변화하는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라이드는 직원들 개개인이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 변화를 통해 발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과 동기부여야말로 회사를 지탱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케이프라이드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A**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생활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전략도 이런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면역증진, 미래 식품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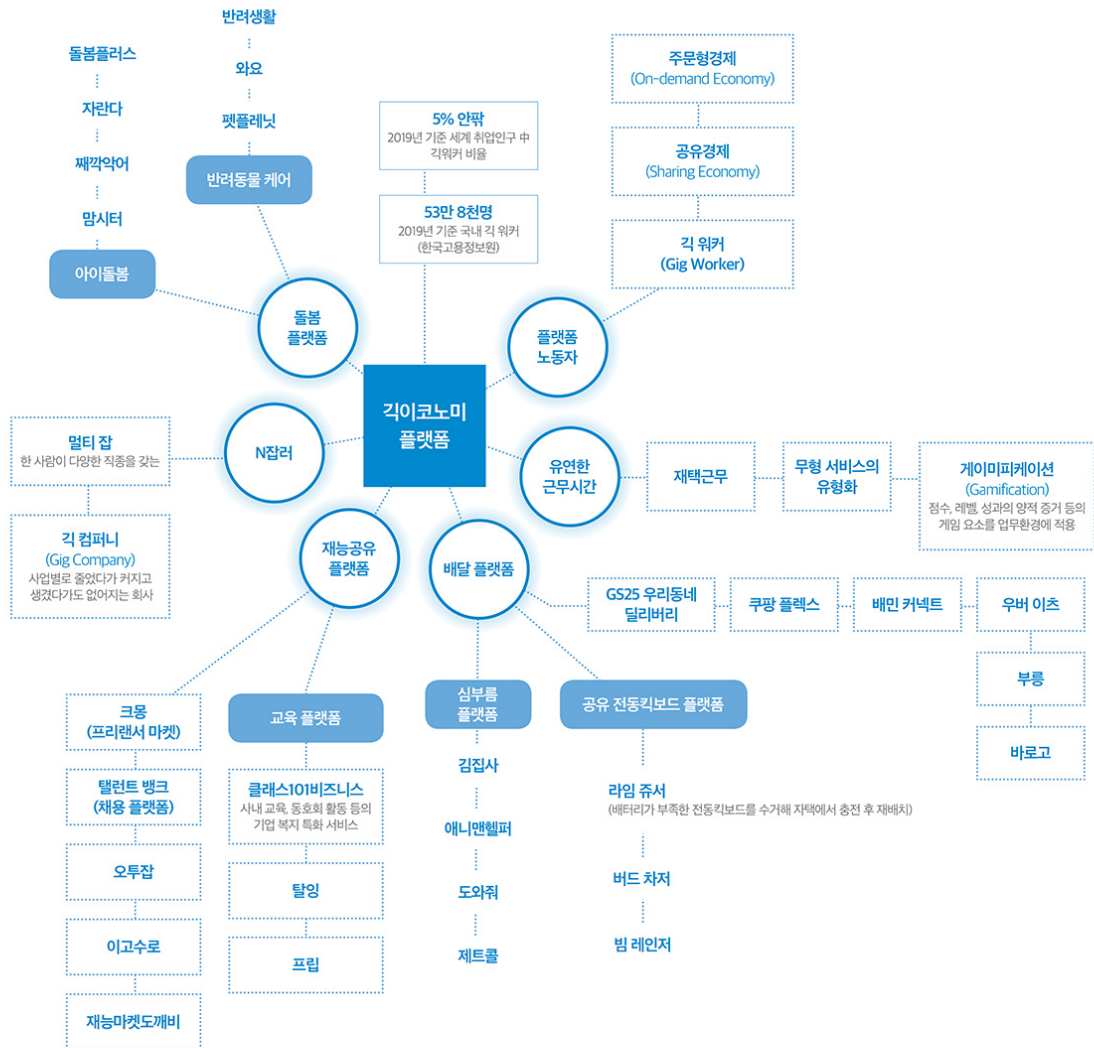




의식의 흐름

# 직 이코노미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플랫폼

일과 삶의 균형을 부르짖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노동시장의 화두였다면 이제, 필요에 따라 일하는 직 이코노미(Gig Economy)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와 언택트 소비 증가 등 플랫폼 노동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직 워커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 일시적인 것들로 즐겨보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여행법

FIND  
A HOTEL

영원한 직장과 직업이 사라진지 오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의 '긱이코노미(Gig Economy)'가 세계 고용 및 노동 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산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시대, 이제는 여행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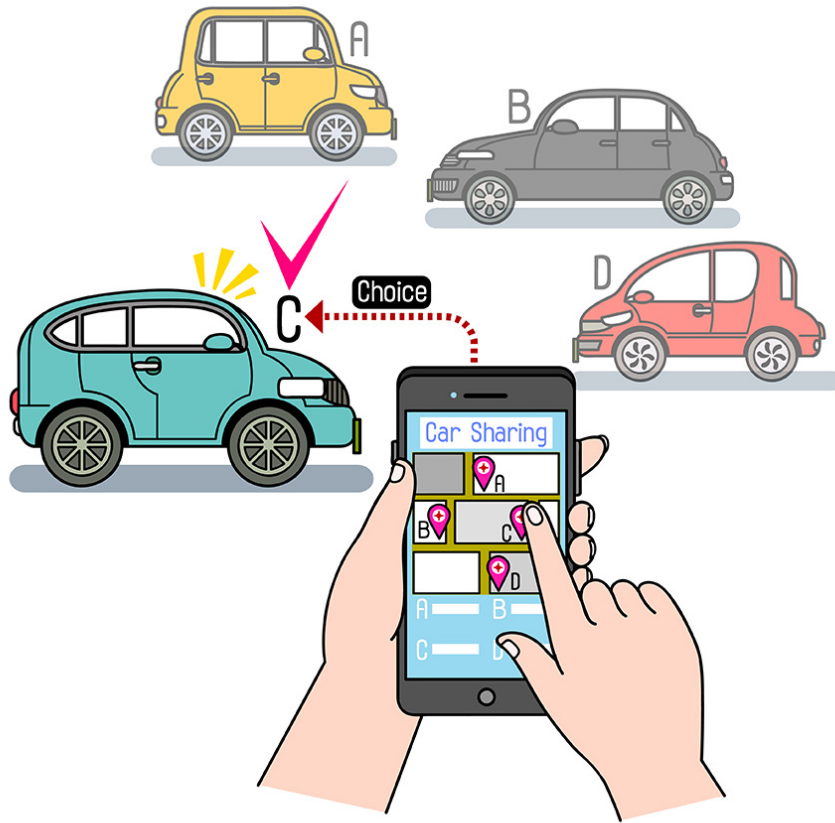


## ‘역시 집이 최고야!’ 평범한 집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행

장기간 여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숙소. 하지만 제아무리 5성급 호텔이나 번쩍이는 풀빌라도 집 같은 안락함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가격도 만만찮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시대에는 집에서 먹고 자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다.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진짜 ‘집’에서 짧지만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가격도 숙박업소에 비해 저렴하며, 색다른 지역의 평범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긱 이코노미 시대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대여해 경제를 취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활성화된 플랫폼이 바로 에어비앤비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여행의 낭만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내 차 킬로수 세이브!’ 남의 차로 즐기는 드라이브

기분 좋게 떠난 여행. 목적지까지 우릴 태워줄 차가 필요하지만 내 차 중고차 값 떨어질 생각에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다. 렌트를 하자니 사용 일수로 계산해야 하고 유류비도 직접 부담하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찌어찌 안전운전, 양보운전해가며 기분 좋게 여행지에 도착해도 주차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딱 찬 주차장, 비싼 주차비를 보고 있다면 차를 버려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자동차 공유 플랫폼 ‘쏘카’가 존재한다. 간편한 절차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고 반납이나 대여는 가장 가까운 쏘카 존에서 진행하면 된다. 전국에 4,000여 개의 존이 있어 기존의 렌터카보다 반납과 대여가 훨씬 자유롭다. 주행거리로 이용료가 책정되어 딱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여행지에서 주차 문제는커녕, 시원하게 한 잔하고 대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 내에서의 간단한 이동은 전동 킷보드 공유 플랫폼인 ‘빔’이나 ‘라임’ 등을 이용해 색다르게 이동해보는 것도 좋다.

이제 다양한 교통 공유 플랫폼으로 보다 빠르게, 하지만 자유롭게 여행지를 누벼보자.

### 더 현명한 킷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의 여행 팁!

- 여행기간 동안 반려견이 걱정된다면 ‘도그워커’와 ‘펫시터’를 통해 반려견의 산책과 보호를 맡길 수 있다.
- 해외여행 시 택시 대신 ‘우버’ 등 운송 플랫폼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택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원하는 만큼 일하고 꿈꾸는 대로 사는 직워커



**원하는 만큼 일하고  
꿈꾸는 대로 사는  
직 워커!**

-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얻고 싶다면? -  
출처: <직 워커로 사는 법> 참고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이 잘 안 돼요

나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작하기 막막해요

자유를 누리면서  
일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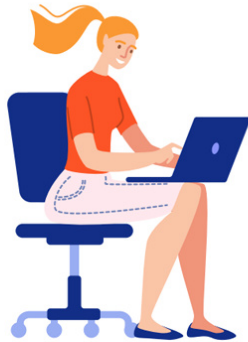
지금 바로 창업하긴  
망설여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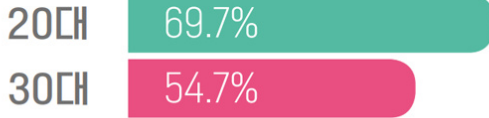
## 긱 워커 (Gig worker)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긱 워커' 일자리 증가**



### 긍정적 반응

자유롭다 (43.1%)

워매이기 싫다 (38.9%)

### 부정적 반응

별다른 기술 없다 (35.2%)

돈이 없는 일자리 (29.1%)

스펙 부족 (17.6%)

## **긱 워커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회성 업무 수행

주도적 경력 관리

유연한 근로시간

자기고용 근로

높은 업무 효율성

긱 경제로 수입을 내는 사람

당신이 꿈꾸는 직장, 이제 스스로 대안을 찾을 때입니다.  
긱 경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나를 브랜드화하다!

일을 선택하는 것도, 일을 진행하는 것도  
분명한 기준은 '나'여야 합니다.



# 노동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비해야할 때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망설이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도전할 수도 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일을 시작해볼 수도 있습니다.

**각 워킹되는 그 날까지!**  
**We are gig going!**



# 생활의 편리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로 챙기자!

각 이코노미 시대의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 20-30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편리한 이동수단,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해 소개한다.

## 편리한 이동 수단을 찾는다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흔히 말하는 킥보드가 기본 형태고, 전동관련 장치가 있어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다. 특히,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또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면허를 소지한 20-30대층 사이에서는 출퇴근, 등하교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장소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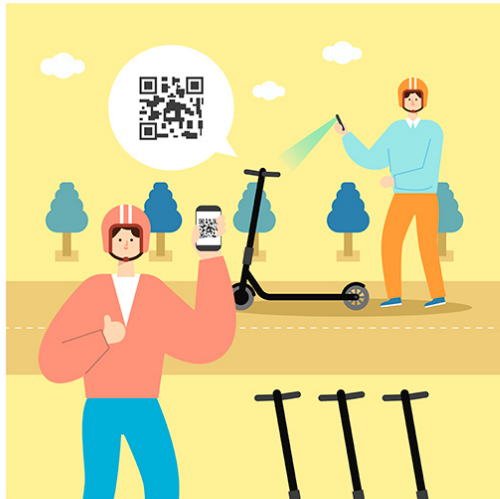
##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회원가입과 인증 과정을 거치고, 해당 지역에 킥보드가 있는 위치를 파악한다. 다양한 장소에 전동 킥보드를 비치해놓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 사용하기 편리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운전면허증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최대 25km까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 안전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플랫폼마다 헬멧 착용을 권고 하고 있어 이 점을 유념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스마트한 모빌리티



모든 공유 전동 킥보드는 해당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가 자동으로 인식되면, 킥보드를 타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이 된다. 요금은 분 단위로 정산된다. 회원가입 시 요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운행이 종료되면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한쪽 발로 땅을 뒤로 밀면서 출발하는데, 주로 왼쪽에 브레이크, 오른쪽에 속도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다.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체에서 지정한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지는 모빌리티 플랫폼, 공유 전동 킥보드로 경제성은 물론 생활의 편리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영화로운 ISC

# 각 이코노미의 현실을 말하다 <미안해요, 리키>

[사진 - 네이버 영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달로 일자리의 형태도 달라졌다. <미안해요, 리키>는 '각 이코노미(gig economy)'를 주제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인공인 리키와 그의 아내 아비 터너는 가정의 미래를 위해 맞벌이로 일을 하며 두 자녀 셉과 라이자 제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를 제대로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리키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은행이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일을 전전한 리키는 택배 기사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한다.



리키가 일하려는 택배 회사에서는 정식 채용이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라고 말한다. 리키는 희망을 품는다.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하루 14시간, 6일을 근무하면 빚도 갚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택배 회사는 리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이나 여가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름값과 보험료, 심지어 불법주차 과태료도 리키가 번 돈에서 지출해야 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다.



아내인 '애비'도 리키와 비슷한 상황이다. 노인들을 간병하는 일을 하는 애비는 제로 아워 계약으로 근무한다.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렇게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리키와 애비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힘든 일과를 끝내고 식탁에 앉아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 소박한 꿈이지만 어느 순간 리키와 애비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씁쓸하지만 매우 익숙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각 이코노미는 노동을 공유하고, 일하는 환경과 시간이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리키와 애비처럼 현실적인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도 각 이코노미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영국이지만,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다양한 노동형태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준다.



영화는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인간은 노동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안해요, 리키>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힘이 되는 자격증

#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 '자동차정비기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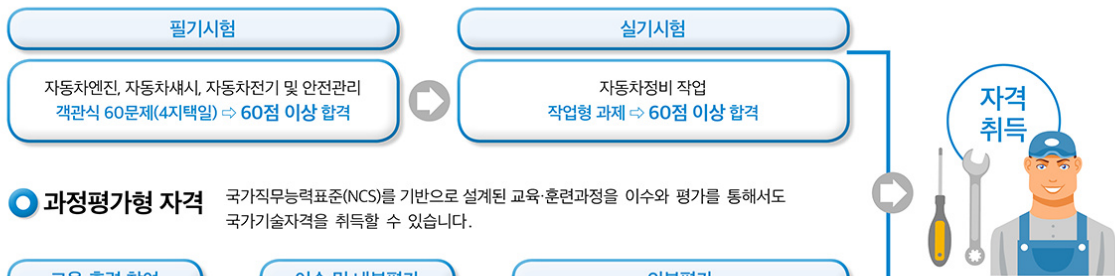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11월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에 대해 알아보니다.

“  
자동차정비기능사각종 공구 및 기기와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엔진, 샤프트,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 부위를 진단하고, 적합한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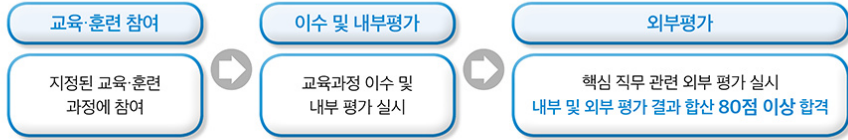
##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 ● 검정형 자격



### ● 과정평가형 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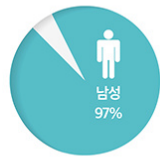


## 자격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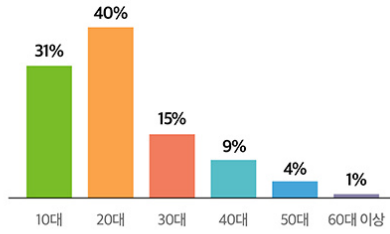
### ● 취득자 수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8,344명	8,940명	8,427명	7,427명	6,9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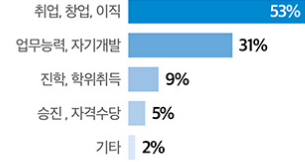
## ○ 응시자 동향 (2019년 기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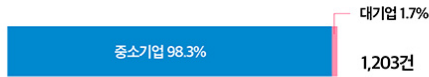
연령



응시목적

## 자격취득자 워크넷 구인현황 (www.work.go.kr, 2018년)

### ○ 구인건수



### ○ 채용 제안금액



## 우대 사항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정비책임자의 선임 자격 요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자동차 정비 책임자 자격 인정

###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운영자 인력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자동차 경매장 개설·운영 허가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교통안전법 시행령)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

## 관련 직업 전망 (www.work.go.kr, 한국직업전망)

- 가솔린 하이브리드차(HEV), 클린 디젤차 등과 같은 신차의 출현,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자동화법장치 등을 갖춘 고급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인력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 2016년 약 117천명에서 2026년 약 181천명으로 향후 10년간 고용은 약 4천명(연 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모든 것(큐넷) [www.Q-net.or.kr](http://www.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www.ncs.go.kr](http://www.ncs.go.kr)  
직업·일자리 정보(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 과정평가형자격(씨큐넷) [www.C.Q-net.or.kr](http://www.C.Q-net.or.kr)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무엇인가요?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입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주요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산업·업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1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사업단 구성 및 역할

### 산업별 협·단체

- 산업계 주도 훈련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ISC-RSC, 공동훈련센터, 기업과 협의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기업 협약 훈련 채용 지원



+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산업계 주도 훈련의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훈련센터 훈련 계획 수립
- 훈련 과정 개설 및 운영
- 채용 예정자 훈련 수료생의 채용 지원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현황

연번	산업분야	산업별 협·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금형·금속가공·표면처리·용접(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뿌리I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6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아주대학교
7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8	정보통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2020. 10. 12. 기준)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어떤 훈련과정이 있나요?

4차 산업분야, 신산업·신기술·고속련 분야 등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스마트공장, 관광·레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16개 분야·78개의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운영절차가 궁금하다면?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주요사업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문의** 지역산업별지원국 산업지원부 (052-714-8752, 879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공산의 품에  
유자함나라